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한 시절을 훑느라 지문이 다 닳았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공통과목 1~12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13~16쪽
 - 언어와 매체..... 17~20쪽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둠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나
백골이 우는 것이나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나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나)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A]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B]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C]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트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 를 먹는다

[D]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대화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외양 묘사를 통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의문의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나)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에는 사과나무가 거쳐 온 계절 속에 담긴 자연의 작용들이 표현되어 있다.
 - [A]와 달리 [B]에는 사과가 열리기까지의 인간의 노력과 역할들이 담겨 있다.
 - [C]는 사과나무에 쌓인 시간들이 사과에 담겨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C]와 달리 [D]에는 사과가 열리는 과정과 단절된 대상이 드러난다.
 - [A]~[C]와 달리 [D]는 흙으로 빚어진 사과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 과정을 강조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학 창작은 작가 개개인의 삶의 체험이 작가의 개성적 시각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작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성찰의 과정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일상의 경험에서 얻은 가치 있는 깨달음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즉 작가 개개인의 경험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치열한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작품에 작가의 개성으로 드러난다. (가)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겪은 내적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태도가 작품에 드러나며, (나)의 경우 일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 즉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시하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모색하는 시인만의 개성이 작품에 드러나기도 한다.

- ① (가)에서는 ‘어둔 방’이 ‘우주’로 통한다고 표현하면서 시대적 상황에 기반한 갈등과 성찰의 과정을 개성적 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또 다른 고향’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겪어야 했던 작가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군.
- ③ (가)에서는 ‘눈물짓는’ 대상을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연속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성찰이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에서는 ‘사과를 먹는’ 경험을 다양한 대상과 연결함으로써 ‘먹는’ 행위에, 일상적 의미에서 확장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
- ⑤ (나)에서는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낯선 표현을 통해 먹고 먹히는 주체를 전복시켜 인간과 자연물이 연결된 존재라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군.

4. (가)와 (나)의 **우주**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우주’는 화자의 자부심을, (나)의 ‘우주’는 시적 대상이 지닌 성숙함을 드러낸다.
- ② (가)의 ‘우주’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계를, (나)의 ‘우주’는 시적 대상의 탄생에 관여한 존재들의 총체를 드러낸다.
- ③ (가)의 ‘우주’는 (나)와 달리, 다른 대상과 단절된 공간으로 제시된다.
- ④ (나)의 ‘우주’는 (가)와 달리, 부정적 공간을 긍정적 공간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나타난다.
- ⑤ (가)와 (나)의 ‘우주’는 모두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기대를 담은 공간으로 제시된다.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4차 산업 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능력 자체가 무능해졌다기보다는 문제의 성격 자체가 정부가 **①감당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시빅 테크’가 최근 **②부상하고 있다**. 시빅 테크는 ‘시민’ 혹은 ‘시민의’라는 뜻을 가진 ‘Civic’과 ‘기술’이라는 뜻을 가진 ‘Tech’가 결합된 말이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문제나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모색하는 시민운동 또는 시민 참여를 의미한다.

시빅 테크의 등장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디지털 환경의 형성, 행정 기관 및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유 데이터(공공 데이터)의 개방 움직임을 배경으로 한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말한다. 정보 통신망의 구축에 따라 사회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및 공공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노출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독점하며 진행하던 일방적·하향식 정책 관리 방법이 시민 주도의 자발적·상향식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빅 테크는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이다.

새로운 시민 참여로서의 시빅 테크는 전통적인 시민 참여와 달리, 시민 단체 및 지역 공동체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개 집단이나 조직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대신 수많은 개인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대안을 함께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즉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 의제를 설정하며,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적극적으로 **③문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 인공지능, 빅 데이터, IoT 등의 **④지능 정보 기술**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특정 분야 및 목적에 대하여 추론 능력, 인지 능력, 학습 능력 등 사람의 지능을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일부 구현한 기술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콘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빅 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⑤선제적 대응**을 통

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IoT는 사람, 사물, 서비스 등의 분산된 환경 요소가 상호 협력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사물 공간 연결 인프라로써 사람의 개입 없이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음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해져 커뮤니티의 확대도 촉진된다. 이처럼 지능 정보 기술은 전문 지식과 정보 접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시민이 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 도구를 제작하고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재 시빅 테크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혁신을 촉진하려는 '열린 정부 운동'과 지역 사회 활동이나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분야로서의 '커뮤니티 활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열린 정부 운동은 공공 데이터를 더 활용하기 좋은 형식으로 공개하는 작업이나 바람직한 공공 데이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기관 컨설팅 등이 있다. 커뮤니티 활동은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금 모금, 정보 공유, 시민운동 조직, 자원 공유, 토론 및 포럼 개최 등이 있다.

시빅 테크는 정보 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의 공공 가치 회복에 기여하고, 시민이 사회의 중심 주체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시민의 요구를 좀 더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시민과 정부 간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빅 테크가 정착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나 정보 통신 기술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은 참여자의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활용 능력이 미흡한 사람들은 시빅 테크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거나 무관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빅 테크가 공익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이러한 한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에 대한 통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를 설명하는 두 가지 입장을 비교하고 각각의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와 관련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중심 화제의 변천 과정을 나열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의 등장 배경을 제시하고 중심 화제와 관련한 핵심 수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6.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 데이터 개방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 ② 공공 문제의 성격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한 이유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③ 시빅 테크는 바람직한 공공 데이터 개발을 위한 공공 기관 컨설팅을 통해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혁신을 촉진하기도 한다.
- ④ 행정 기관 및 공적 기관은 자신들이 취득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⑤ 시빅 테크는 기술적으로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여 지역 공동체 등과 같은 조직의 매개 없이 개인 간의 직접 연결을 확대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공유하게 한다.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20××년 11월 말, 기습 폭설이 ○○시를 덮쳤다. 눈보라 때문에 전신주가 쓰러지는 바람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폭설로 소방관이 출동하기 어려웠으며, 높이 쌓인 눈 속에 마을 곳곳의 소화전이 파묻혀 소화전을 찾지 못해 불을 신속하게 끄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마을의 몇몇 사람이 이 문제를 보고 누리 소통망(SNS)에 마을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을 알리고, 마을 지도 위에 소화전 위치를 표시한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만들어 게시했다. '소화전 입양하기' 앱에 필요한 소화전의 위치 정보는 ○○시 누리집에 게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누리 소통망을 통해 마을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마을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했다. 앱을 통해 소화전을 입양한 마을 주민들은 주인 의식을 갖고 소화전 위에 쌓인 눈을 치우며 집 주변 소화전을 직접 관리했다. 이 덕분에 폭설로 인해 소방관이 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재빨리 소화전을 찾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보기>의 마을 주민들은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의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군.
- ② <보기>의 마을 사람들이 앱을 제작하여 소화전의 위치 정보를 공유한 활동은 시빅 테크 분야 중에서 '커뮤니티 활동'에 해당되는군.
- ③ <보기>에서 마을의 문제 상황과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누리 소통망에 게시한 것은 바람직한 공공 데이터 개발의 유도에 따른 결과이군.
- ④ <보기>의 마을 주민들이 소화전을 입양하여 직접 소화전을 관리하는 모습은 시빅 테크가 사회의 공공 가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⑤ <보기>의 '소화전 입양하기' 앱에서 마을 지도 위에 표시된 소화전의 위치는 정부 기관이 공공 데이터로서 시민들에게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표시한 것이군.

8. 다음은 '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를 위한 작문 수업에서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제: 다음 <자료>와 <조건>을 참고하여 시빅 테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자료> '디지털 래그(Digital Lag)' 현상을 들어 본격 있는가? 디지털 래그 현상이란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상이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 '디지털 소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노인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젊은이들에 비해 디지털 기기를 접하기 어렵고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쉽게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조건> 윗글과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시빅 테크의 한계점을 밝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

- <조건>을 고려하여 표현하기: ㉠

- ① 시빅 테크는 시민과 정부 간 소통을 불안정하게 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시민 주도의 단체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시빅 테크는 시민 모두가 디지털 기기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기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동체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하고 기기를 보급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③ 시빅 테크는 시민의 정치적 참여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정치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④ 사회 문제에 대한 의제를 수립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 격차로 인해 시민들이 정치적 참여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의 오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⑤ 시빅 테크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의제를 수립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디지털 기기의 접근 및 활용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빅 테크가 정착하려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을 키워 주는 교육과 디지털 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민들이 사회적 의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 ② 전문 지식에 대한 시민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 도구 제작에 도움을 준다.
- ③ 발생 가능한 공공 문제 및 사회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④ 지속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사람, 사물 등의 환경 요소로 분산하여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한다.
- ⑤ 데이터 및 콘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1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처리하고 해결하기에는
- ② ㉡: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③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방법을 세움으로써
- ④ ㉣: 다양한 대안의 비교를
- ⑤ ㉤: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물러갔다.
 다: …… 정말 물러갔어요?
 나: 그렇다. 안심하구 일어나렴.
 다: ㉠그래도, 저어, 아직 몇 마리 남아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랬다가 엉겁결에 달려들어 팍 물 수도 있겠구요.
 나: 파수꾼의 눈은 정확하단다. 단 한 마리의 이리도 그 눈을 피해 숨을 순 없지.
 다: 아, 저는 그걸 생각 못 했어요. 죄송해요. 파수꾼의 눈을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리라는 게 그렇죠, 이리를 믿어선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이리는 영큼하고, 사납고, 그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면은…….
 나: 이리가 그렇게도 무섭니?
 다: 네.
 나: 그럼 왜 파수꾼이 될 생각은 했지?
 다: ㉡이렇게까지 무서움을 탈 줄은 몰랐거든요.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파수꾼이 되는 연습을 할 때엔 이렇진 않았습시다. 제법 용감했죠. 특히 칭찬을 받은 건 제 눈이었어요.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것두 척척 알아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감탄했어요. ‘최고의 눈이다. 너 파수꾼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요, 저는 여기에 오길 지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 와 보니 사정이 다르군요. 저는 한 번도 ㉢망루 위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왜 저 망루 위의 파수꾼은 교대하질 않죠?
 나: 저분은 말이다, 지금까지 실수를 하지 않았단다. 단 한 번도 이리 떼를 놓친 적이 없었어.
 다: 굉장하네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밤이 되자 파수꾼 ‘다’는 이리 떼에 대한 걱정으로 망루에 오른다. 평화로운 풍경만이 파수꾼 ‘다’의 눈에 들어오고, 그 순간 이리 떼의 등장을 알리는 파수꾼 ‘가’의 외침이 들린다. 진실을 알게 된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편지를 보내고 그 내용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게 된다.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텃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

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늑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뭐라구?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는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구, 마을엔 ㉦가지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구, 양철북도 두들기구,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그래, 외치마.
 다: 아, 이제 됐어요!
 촌장: (혼잣말처럼) …… 그러나 잘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구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뭘 망설이시죠?
 촌장: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낼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구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구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살인이라구요?
 촌장: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애,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아니에요, 그건!
 촌장: 아니라구?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떼를 만들었든가, 그걸 알려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구,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구,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애, 내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구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구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구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
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
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물론 약속하지.

다: ㉠정말이죠, 정말?

촌장: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나: 또, 헛치었습니다. 이리는 위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
아도 가 보면 달아나구 없어요.

촌장: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나: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껌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구 싶었는데…….

촌장: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나: (촌장에게 안겨 있는 다를 가리키며) 그 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촌장: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나: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촌장: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나: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 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야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 주
렴.

다: (힘없이 웃으며) …… 고마워요.

나: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
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마을 사람들이지요.

나: 마을 사람들이요?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
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
인했습니다.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

- 이강백, 「파수꾼」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수꾼 '나'는 '촌장'에게 이리 껌질을 선사하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았다.
- ②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의 질병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 ③ '촌장'은 진실을 알지 못한 파수꾼의 일생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파수꾼에게 미안해했다.
- ④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부응하는 망루 위의 파수꾼이 되길 기대했지만, 이를 이루지 못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 '다'의 편지에 담긴 이리 떼가 없다는 내용에 분노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망루로 몰려왔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마을의 질서 유지를 위해 파수꾼이 마을을 감시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② ㉡: 파수꾼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재이다.
- ③ ㉢: 마을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작용하는 소재이다.
- ④ ㉣: 이리 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쏟아질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형상화한 소재이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말을 믿지 못하며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 과거에 가졌던 생각과는 다른,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 ③ ㉢: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심이 서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상대의 말에 반문하며 상대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 상대의 말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부적절한 권력이 유지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드러내어 당대의 현실을 풍자했다. 거짓에 바탕을 둔 권력이 구성원의 일상을 통제하는 어떤 마을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부적절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권력자를 비판함과 동시에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조하거나, 자신이 부적절한 권력이 유지되는 데에 일조하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제시하여 부조리한 상황이 특정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권력자에 복종하는 무비판적인 인물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보여 준다. 작중 인물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작중 상황을 넘어 당대 현실의 부조리함을 풍자하고 있다.

- ① 이리 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이리 떼가 나타났다고 알리는 파수꾼 '가'의 외침은 거짓 유지에 동조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파수꾼 '가'가 실수를 한 적이 없다고 믿는 파수꾼 '나'의 모습은 '촌장'의 부적절한 권력 유지에 일조하는 무비판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존재하지 않는 이리 떼를 통해 마을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촌장'의 말은 '촌장'이 구성원들을 통제함으로써 부적절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인물임을 보여 준 것이겠군.
- ④ 흰 구름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는 파수꾼 '다'의 모습은 부조리한 행태가 유지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마을 사람들'이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하였다는 '촌장'의 말은 무비판적으로 권력자에 복종하는 구성원들의 모습과 더불어 기만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권력자의 행태를 드러낸 것이겠군.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이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었으며,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도 몇 세기 전의 일이다. 18세기 말 유럽에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문제를 다룬 과학 서적이 다수 있었고 19세기 초 유럽인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교신을 시도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전파 망원경이라는 혁신적 도구를 통해 우주 공간 속 외계 지적 생명체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우주에는 은하가 약 1천억 개 정도 존재한다고 하며, 각 은하에는 평균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약 1022개의 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의 개수이고, 그 속에 존재하는 지구와 같은 행성의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행성 중 지구 외에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외계 문명에 대한 탐색은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를 들 수 있다. SETI 프로젝트는 우주 어딘가에서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전파 신호를 지구에서 수신하여 간접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전파 신호를 발신하는 외계 생명체의 경우 인간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발전된 지적 수준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SETI 프로젝트는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매우 많은 외계 생명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SETI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외계 지성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까지 동참하는 가장 대중적인 탐사 프로젝트로 확장되었다. 전 세계에서 17만여 명의 일반 대중이 참여하고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티 앳 홈

(SETI@home)'이 그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PC를 전파 망원경이 수신한 전파 신호의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다. 네티즌들이 이 프로젝트 누리집에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하면, 주인이 잠자는 시간 등 PC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PC가 자동으로 분석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전파 망원경이 수신한 전파 신호 속에는 온갖 자연의 전파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인공의 전파를 찾아내려면 엄청난 정보 처리 용량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전 세계의 PC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인 의문은 '정말 그들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SETI 프로젝트를 발기한 미국의 전파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드레이크 방정식'을 고안했다. 이 방정식은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고등 문명의 존속 기간과 우리 은하 내에서 생명체 탄생에 적합한 항성의 생성률의 곱에 항성이 행성을 가질 확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 행성에 생명이 탄생할 확률,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존재를 알릴 통신 기술을 가질 확률 등의 인자들을 곱한 것이다. 드레이크 자신조차 이 방정식에 포함되는 인자들 중 그 어느 것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제로(0)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끊임없는 시도와 탐구를 통해 우주에 관한 지식이 늘어어나면 우리와 통신이 가능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이론 문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외계 지적 생명체를 포함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은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탐구해 가는 철학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답을 찾는 방법은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 인간을 되돌아보고 인간이 그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돌이켜 보는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의 근원과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계 행성에 대한 탐사와 생명체의 단서를 찾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주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고자 한다면 생명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외계 행성에서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조의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 발견하고도 지나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반영하여 미국 우주 탐사와 관련한 한 위원회 보고서는 '미국의 우주 탐사에서 외계 생명과 조우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다.'라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따라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한다면 무엇을 찾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흔히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생명체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대사를 하고, 자극에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하

며, 발생, 성장, 생식, 유전, 적응과 진화를 하는 개체를 생명체로 정의한다. 그러나 최근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이던 지역에서 생명체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 강한 압력,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매우 건조한 지역, 강한 방사선 따위에서 생존하는 미생물들이다. ㉠결국 이것은 지구 이외의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는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정의는 지구 생명체에 한정된 특성을 바탕으로 내려진 정의이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 생명체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다시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슈뢰딩거는 우주의 보편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통해 생명체를 설명하고자 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자연 물질이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무질서한 상태로 점점 변화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슈뢰딩거는 생명체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무시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생명체를 외부에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개체라고 정의했다. 이는 생명체가 에너지와 물질의 유출입이 있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체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슈뢰딩거의 정의가 지구뿐만 아니라 광활한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주 속의 생명체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와 연구를 통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여 갈 수 있을 것이다.

15.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특정 대상을 탐사하는 방법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유추를 활용하여 특정 대상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수학적 방법으로, (나)는 철학적 방법을 통해 특정 대상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대상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대상의 존재를 분석하는 공통된 과학 이론을 제시하며 특정 대상에 대한 연구의 가치를 밝히고 있다.

16.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드레이크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방정식으로 제시했다.
- ② 외계 문명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작업은 과학적 도구의 개발과 함께 시작되었다.
- ③ SETI 프로젝트에서는 수많은 외계 생명체 중에서 일부의 대상만을 탐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 ④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인류는 외계 문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⑤ '세티 앳 홈'에 활용된 PC는 이용자가 사용 중일지라도 전파 망원경이 수신한 신호의 분석을 수행한다.

17. (가)의 'SETI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홍보 문구를 다음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SETI 프로젝트의 탐사 대상을 명확히 밝힐 것.
- 속담을 활용하여 SETI 프로젝트 탐사의 어려움을 언급하되, ㉠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동참의 의의를 제시할 것.

- ① 외계 지적 생명체와 대화할 수 있는 SETI 프로젝트!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딘가에서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대화는 시작됩니다.
- ② SETI 프로젝트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거울로 삼아, 외계에 존재하는 지적 생명체에 주의를 돌려 우리 인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 공유해 보는 기회를 함께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 ③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릴 수 없는 미생물 등의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은 서울 가서 김 서방 찾기라는 말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바탕이 될 때, 단서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SETI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 ④ 드넓은 우주에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외계 지적 생명체를 만나기란 잔디밭에서 바늘 찾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그 존재는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SETI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외계 지적 생명체의 신호를 발견할 가능성의 희망이 이어질 것입니다.
- ⑤ 수많은 행성 중에서 이미 우리의 존재를 찾고 있는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SETI 프로젝트의 문을 두드리세요. 당겨 놓은 화살을 놓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전해지고 있는 우주의 전파 신호를 함께 확인하며 그들을 맞을 준비에 동참해 주세요.

18.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후, 천문 우주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1: 외계 생명체의 탐사를 위해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외계 생명체의 단서를 찾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까?

학생 2: 항성과 행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의 존재나 그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 ㉠

학생 3: 인간이란 존재의 근원과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철학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외계 생명체의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 ㉡

학생 1: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는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외계 생명체는 지구 생명체와는 다른 특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한 우주선을 직접 보내 외계 생명체를 확인하려는 탐사 방법은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니, 직접 탐사 이외에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학생 3: 그래, 우주의 어떤 행성들에는 지구와 달리 고온, 고압, 강한 방사선 속에서도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 ㉢

학생 2: 지적 수준이 높은 외계 생명체는 우리처럼 우주 공간 속 또 다른 생명체를 찾기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으니, 외계 생명체의 탐사를 위해 우주선을 직접 보내는 것 이외에도 외계 생명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노력도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 …………… ㉣

학생 1: 그런데 우주에는 수많은 전파 신호가 뒤섞여 있다고 하던데. 수많은 전파 신호 중에서 지적 생명체가 발신한 전파 신호를 찾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전파 신호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전파 신호를 찾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겠네.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9. (나)의 '슈뢰딩거'와 <보기>의 '윈하이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루돌프 윈하이머는 생명체의 모든 조직과 세포의 내부는 분해와 합성의 순환 과정을 통해 변화하며 새로워진다고 생각했다.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는 빠른 속도로 분해되며 외부에서 유입된 분자로 대체된다. 외부에서 유입되어 대체된 분자는 다시 분해의 과정을 거쳐 환경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과정의 흐름 속에서 생명체는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를 '동적 평형' 상태라 한다. 동적 평형은 생명체 내부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분해와 합성 사이의 정교한 균형을 말한다. 윈하이머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보았다.

- ① 슈뢰딩거와 윈하이머 모두 생명체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적용되는 개체라고 생각했겠군.
- ② 슈뢰딩거와 마찬가지로 윈하이머는 생명체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유출입이 있다고 보았겠군.
- ③ 슈뢰딩거와 윈하이머 모두 생명체 내부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생명 현상을 정의하려 했겠군.
- ④ 슈뢰딩거는 윈하이머와 달리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생명체에 대한 정의는 우주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보았겠군.
- ⑤ 슈뢰딩거와 달리 윈하이머는 생명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한 상태일지라도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통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환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군.

20.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명체의 서식 환경의 범위는 외계 행성의 가혹한 환경까지 포함할 정도로 넓다.
- ② 외계 행성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와는 다른 형태를 지닌 생명체가 발견되었다.
- ③ 지구와 외계 행성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 ④ 지구 생명체가 보이는 발생, 성장, 생식, 유전, 적응과 진화 등의 특징은 외계 행성의 환경에서는 소멸된다.
- ⑤ 미생물과 같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지구 이외의 행성들의 생명체 서식 환경이 지구의 생명체 서식 환경보다 유리하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전 시가에서 화자가 시적 대상을 예찬하거나 송축하는 태도는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 말까지 다양한 장르의 많은 작품에서 발견되는 특성이다. 예찬과 송축의 대상은 주로 특정한 인물, 장소, 자연물 등으로 나타난다.

(나)는 '기랑(기파랑)'이라는 특정한 인물이 예찬의 대상이고, (다)는 한양을 의미하는 '신도'나 조선의 개국 군주인 '태조'가 예찬이나 송축의 대상이다. 그리고 (라)는 사군자의 하나로 선비들이 애호했던 '매화'라는 자연물이 예찬의 대상이다. 이렇게 시적 대상을 예찬하거나 송축하는 작품들은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나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들은 작가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나 세계관을 탐지할 수 있다.

(나)

열치매*
 [A] 나토얀 드리
 힌 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새파른 나리여히
 기랑(耆郎)의 즈시* 이슈라*
 [B] 일로* 나리시 지벽히*
 랑(郎)의 디니다샤온
 므스민 궤홀* 좃누아저

아으 잣사가지 노파
 [C] ㉠서리 몬누올 화판(花判)*이여

- 충담사, 양주동 해독, 「찬기파랑가」

- *열치매: 열어젖히며.
- *안디하: 아닌가?
- *즈시: 모습이.
- *이슈라: 있구나.
- *일로: 이로부터.
- *지벽히: 조약돌에.
- *므스민 궤홀: 마음의 끝을.
- *화판: 화랑의 우두머리.

(다)

네는 양주(楊州) | 꼬올히여
 디위에 신도 형승(新都形勝)이샷다*
 기국 성왕(開國聖王)이 성덕(聖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운더* 당금경(當今景) 잣다운더
 성수만년(聖壽萬年) 하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아으 다롱다리

알픈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덕둥(德重) 하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세(萬歲)를 누리쇼셔

- 정도전, 「신도가」

- *신도 형승이샷다: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 *잣다운더: 도성답구나.
- *함락이샷다: 함께 즐거워하도다.

(라)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 너를 밋지 안얏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직켜 두세 송이 푸엇구나
 촉(燭) 잡고 갓가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
 라
 <제2수>

㉡브름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딛치니
 찬 기운(氣運) 시여 드리 즈는 매화(梅花)를 침노(侵擄)허
 니
 아무리 어우려 허인들 봄뜻이야 아슬소나
 <제6수>

동각(東閣)에 숨운 쫓치 척축(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
 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여늘 제 엇지 감히 뛰리
 알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밧게 뉘 이시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은히 떠돌.
- *척축: 철쭉.
- *두견화: 진달래.
- *백설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21. (가)를 바탕으로 (나)~(라)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는 '기랑'이라는 특정한 인물의 고매한 인품을 '나리시 지벽'이라는 소재와 관련지어 예찬하고 있군.
- ② (다)에서는 '신도'라는 장소의 뛰어난 경관을 '잣다운더'라는 영탄적 표현을 반복하며 예찬하고 있군.
- ③ (다)에서는 '기국 성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만세를 누리쇼셔'라고 송축하고 있군.
- ④ (라)에서는 '너'라고 인격을 부여한 '매화'의 화려하고 풍성한 외양을 '암향부동하더라'라는 감각적 표현으로 예찬하고 있군.
- ⑤ (라)에서는 '매화'의 장점을 다른 사물과 견주어 '매화밧게 뉘이시리'라는 설의적 표현으로 예찬하고 있군.

22. <보기>를 참조하여 (나)의 [A]~[C]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10구체 향가는 일반적으로 3단 구성으로 시상이 전개됩니다. (나)는 화자가 기과량을 생각하면서 달에게 질문을 하는 [A], 달이 화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B], 향가 중 10구체에만 존재하는 낙구(落句)로 화자가 독백을 하며 서정적 완결을 이루는 [C]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① [A]의 달은 화자가 질문을 하는 대상인 동시에 자신의 소망을 비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② [B]에서 달의 대답은 여러 공간을 이동하며 시적 대상의 행적을 살펴본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 ③ [C]는 화자의 영탄적 표현으로 시작되고, 시적 대상의 정신적 경지를 드러내며 예찬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위를 향하고 있고, [C]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
- ⑤ [B]와 [C]는 모두 선명한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적 대상과 이별한 비애감을 강조하고 있다.

23. <보기>를 참조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악장은 조선 초기에 발생한 시가 형태의 하나로, 임금이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베푸는 잔치인 연례(宴禮)에서 궁중 음악에 맞추어 불렀다. 악장인 「신도가」는 '전대절, 조흥구, 후소절'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흥구는 흥을 돋우기 위하여 운율 조성의 보조 수법으로 넣는 구(句)로 음악적 선율을 말로 옮겨 놓은 것이다. 조흥구의 삽입은 「신도가」가 연례에 사용된 노래임을 알려 준다. 「신도가」는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도한 정도전이 지었는데, 완성된 도성에 대한 경탄과 자부심,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갖춘 한양에 대한 애정 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전대절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도성의 모습에 대한 경탄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전대절에서는 임금의 성덕을 기리며 건국과 도성 건설에 기여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아으 다롱다리'의 삽입은 이 작품이 연례에서 반주에 맞추어 불린 노래라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
- ④ 후소절에서는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새로운 도성이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전대절에서는 선조들의 노고를, 후소절에서는 후손들의 근면을 강조하며 새로운 도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군.

24.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시적 대상에게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있다.
- ② ㉠와 ㉡는 모두 시적 대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암시하고 있다.
- ③ ㉠와 ㉡는 모두 시적 대상의 본받을 만한 장점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 ④ ㉠는 시적 대상을 방해하고 있고, ㉡는 시적 대상을 돕고 있다.
- ⑤ ㉠는 시적 대상의 현실 적응력을, ㉡는 시적 대상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논리학의 관심은 인간의 추론 능력에 있으며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추론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추론뿐만 아니라 판단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고 작용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알 수 있는 사실을 어떤 언어 형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논리학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추론 작용을 객관적인 언어 세계에서 관계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를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를 '명제'라고 부른다. 그것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에 필요한 문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언어가 반드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연 언어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언어라면 수식이나 코드(code)와 같은 인공 언어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자연 언어와 달리, 인공 언어는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기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 언어는 자연 언어보다 사실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연 언어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말로 된 문장과 영어로 된 문장이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진술한다고 할 때 그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같다.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때 한 명제가 지닌 참과 거짓의 속성을 진릿값이라고 한다. 한 명제의 진위 여부는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되면 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된다. 그런데 논리학에서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언어 세계에 관한 명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버지는 남자이다.'와 같은 명제는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명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곧 그것이 참 명제임을 알 수가 있다. '남자'라

는 말의 뜻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제가 맺어 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위가 판단되는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한다.

분석 명제가 아니면서,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제도 있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처럼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로 구성된 '단순 명제'가 둘 이상 결합한 명제를 '합성 명제'라 한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이 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이 된다. 반면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었지만, 우리 반의 어느 학생들도 교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명제는 문장 구조상으로 거짓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두 개의 단순 명제로 구성된 합성 명제도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개념의 관계나 문장 구조에 의해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한 명제와 몇 개 명제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소개해 주는 철학사 책이나 철학 백과사전을 펼쳐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는 긍정 명제의 진위를 가려내어 그것이 참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부정 명제는 거짓이라고 판단한다.

한 명제의 진릿값이 다른 명제나 명제들의 진릿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또 다른 예는 논리적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모두 20세 이상이다.'라는 명제는 ㉤'○○ 대학생들은 모두 20세 이상이다.'라는 명제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 한편 a와 b가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a가 c의 아들이고 b도 c의 아들이라든지, a가 c의 형제이고 b도 c의 형제라는 사실을 통해 a와 b가 형제임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사실들을 진술하는 명제들 간의 논리적 함축 관계에 의해서 알게 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논리적 함축 관계는 한 명제나 몇 개의 명제들이 참일 때 그것이 함축하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지만, 주어진 명제나 명제들이 참이 아닐 때는 그것이 함축하는 명제의 진릿값에 대한 확인을 해 주지 못한다.

명제는 논리학에서 판단이나 추론의 기본 단위가 된다. 이러한 명제를 통하여 사실의 진위를 판정할 수 있고, 명제의 진위 판정을 통하여 올바른 지식 체계를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판단이나 지식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명제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해야 하며, 그 명제들의 논리적 관

계를 꼼꼼하게 따져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25.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_____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 ① 논리적 오류의 유형을 정리하기 위해 명제의 종류와 특징을 분석한 글을 읽으려는
- ② 논리학에 대한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특정 학자의 이론을 다룬 글을 읽으려는
- ③ 올바른 판단과 지식 체계의 바탕을 살펴보기 위해 명제의 개념과 진위 판단의 방법을 다룬 글을 읽으려는
- ④ 인간만이 지닌 고등 사고 능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과정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읽으려는
- ⑤ 논리적인 언어 표현의 중요성을 탐구하기 위해 논리학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읽으려는

26.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 언어는 인공 언어보다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 ② 인간의 언어 사용은 인간의 추론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③ 명제는 인간의 추론 작용을 객관적인 언어 세계에서 의 관계로 표현하는 기본 단위이다.
- ④ 인공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 사용에 필요한 문법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도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다.
- ⑤ 별개의 언어로 표현된 두 문장이 하나의 사실을 동일하게 진술하면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같다.

27.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A. 총각은 결혼한 성인 남자이다.
- B. $38 = 21 + 17$
- C.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아니다.

- ① A는 '총각'과 '결혼한 남자'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 거짓이 된다.
- ② B는 인공 언어로 표현된 분석 명제이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③ C의 진위는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다.'라는 긍정 명제의 진위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다.
- ④ B는 C보다 사실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에 유용하다.
- ⑤ C와 달리 A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가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8. <보기>는 윗글을 읽고 찾아본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어떤 두 명제 p, q 가운데 한 명제가 참이면 다른 명제가 거짓일 수밖에 없고, 또 둘 가운데 한 명제가 거짓이면 다른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명제 p, q가 모순 관계에 있는 합성 명제는 항상 참이 된다. 반면 어떤 두 명제 p, q가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 명제 p, q 사이의 관계를 '반대 관계'라고 한다. 한편, '현희는 진호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현희는 여자이다.'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함축이라고 한다. 즉 명제 p가 명제 q를 함축한다는 것은 'p가 참일 때 q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 ① ㉠은 명제 p와 명제 q가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항상 참이 되는군.
- ② ㉡의 진릿값이 거짓이 되는 이유는 ㉢를 구성하는 명제 p, q가 모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군.
- ③ ㉠과 ㉡는 명제 p가 참일 때, 명제 q가 거짓이 되는 관계로 이루어진 명제이군.
- ④ ㉢와 ㉣는 함축 관계에 있으므로 ㉢의 진릿값이 참일 때 ㉣의 진릿값은 항상 거짓이 되는군.
- ⑤ ㉣가 거짓일 경우에는 ㉢는 항상 참이 되므로 ㉢는 ㉣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군.

29. 글의 문맥을 고려하며 독서할 때, ㉠~㉤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화제와 관련한 개념을 글의 서두에 밝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다음에 나오는 설명을 확인하면서 화제와 관련한 개념을 파악해야겠어.
- ② 글쓴이는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상반되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앞뒤에 나오는 정보를 대비하며 대상의 특징을 정리해야겠어.
- ③ 글쓴이는 추상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그 내용을 쉽게 풀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 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파악해야겠어.
- ④ 글쓴이는 앞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앞에 제시된 내용의 핵심을 파악해 봐야겠어.
- ⑤ 글쓴이는 중복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대체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어.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경상도 안동 땅에 사는 백선군의 꿈에 숙영이 나타나 자신이 백선군과 천생의 연분이 있음을 말한다. 이후 선군과 숙영은 부부의 연을 맺어 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8년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백상군은 선군에게 과거 시험에 응시할 것을 요구한다.

“당신은 내가 과거를 보고 돌아올 때까지 부모를 잘 모시고 애들과 함께 기다리시오.”
하고 과거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숙영과의 이별이 슬퍼서 한 걸음에 돌아서고 두 걸음에 돌아보며 연연한 정을 금하지 못하므로 숙영도 중문 밖까지 나와서 먼 길에 몸조심하라고 재삼 당부하면서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선군은 수심에 찬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여 발걸음이 무거워 그날은 종일토록 삼십 리밖에 가지 못하였다. 주막에 들어서 저녁상을 받고도 오직 숙영 생각만 간절해서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여 두어 술 뜨다가 상을 물리치니 하인이 민망히 여겨서
“식사를 그렇게 안 하시면, 앞으로 천 리 길을 어떻게 가시렵니까?”

하니 선군이

㉠“아무리 먹으려 해도 입맛이 없으니 어찌겠느냐.”

하였다. 선군은 적막한 주막방에 앉아 있노라니 마음이 산란하였다. 숙영이 옆에 있는 듯하되 보이는 듯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듯하되 귀를 기울이면 들리지 않았다. 바늘 발에 얹은 것처럼 마음을 진정치 못하다가 마침내, 이 경 끝에서 삼경 초에 신발을 들메고 집에 돌아와 담을 넘어서 숙영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을 깬 숙영이 깜짝 놀라서,

“낭군님, 이 밤중에 어떤 일입니까. 오늘 길을 떠난 분이 다시 돌아오셨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니 선군이 대답하기를,

“종일토록 가다가 겨우 삼십 리를 가서 숙소를 정하였으나 다만 그대 생각뿐이라, 첩첩이 쌓인 비감한 생각을 금치 못하여 밥도 먹이지 않고 도중에서 병이 될까 염려되어 한번 더 그대를 보고 외로운 심회를 풀려고 왔소.”

하고 숙영의 손을 이끌어 금침 속으로 끌어들여서 밤이 새도록 정회를 풀었다.

이때 부친 백 공(白公)이 아들을 과거 차 서울로 보내고 도적을 살피려고 청려장을 짊고 담장 안을 돌아다니며 사방의 동정을 보다가 동별당에 이르니, 숙영의 방에서 문득 남자의 말소리가 은은히 들리니 백 공이 가만히 듣다가 혼자 생각에

“머느리는 빙옥지심(氷玉之心)과 송죽지절(松竹之節)의

여인인데 어찌 외간 남자와 사통하여 음행한 짓을 할까. 그러나 세상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니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고 가만히 사창 앞으로 다가서서 귀를 기울이고 엿듣으니 이윽고 숙영이 낮은 음성으로,

“시아버지께서 밖에 와 계신 듯하니 당신은 몸을 이불 속에 숨기세요.”

하며 또 잠이 깬 듯한 아이를 달래면서,

“너희 아버지는 장원 급제하여 영화롭게 돌아오신다.”

하고 어루만지거늘 시아버지 백 공이 크게 의심을 품고 침소로 돌아왔다. 이때 숙영은 시아버지가 밖에서 엿듣는 기척을 미리 알았으므로 선군에게 말하기를,

[B] “시아버지께서 창밖에 와서 엿보고 가셨으니 이미 낭군이 온 줄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낭군은 제게 연연하지 마시고 어서 서울에 올라가 성공 여부를 헤아리지 말고 과거를 보아 부모님이 바라시는 바를 저버리지 마시고 또 제게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각건대 낭군께서 저를 생각하여 여러 번 왕래하게 된다면 그 죄가 크니, 그것은 장부의 도리가 아니요, 또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아신다면 결단코 제가 화를 당할 것은 뻔하니 낭군은 전후 사리를 현명하게 헤아려서 속히 상경하십시오.”

하고 길을 재촉하였다. 선군이 숙영의 말을 옹기여기고 곧 작별하고 다시 주막집 숙소로 달려갔다. 그때까지 하인은 아직 잠을 깨지 않고 자고 있었다.

이튿날 날이 새자 다시 길을 떠나 겨우 오십 리를 가서 숙소를 정하고 달 밝은 객창에 홀로 적막히 앉아 있으니, ㉠숙영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만 가지로 고민하다가, 결국 울적한 정회를 금하지 못해서 또다시 표연히 집으로 돌아와 몰래 숙영의 방으로 들어가니 숙영이 놀라고 꾸짖어 말하기를,

“낭군은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것을 듣지 않고 오늘 밤에 또 돌아왔으니 웬일입니까? 이러다가 천금 귀체가 객창에서 병을 얻으면 어찌시렵니까? 그렇게도 저를 못 잊어 계속 이러실 바에는 제가 차라리 낭군의 숙소에 찾아가겠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우여곡절 끝에 선군이 다시 과거 길에 오르게 되나 숙영은 시비 매월의 간계로 간통의 누명을 쓰게 된다.

“닥쳐라!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눈으로 직접 본 일인데, 네가 끝끝내 나를 속이려고 하니 어찌 통해(痛駭)*치 아니하라. 양반의 집에 이런 해괴한 일이 있기는 드문 법, 실로기가 막힐 노릇이다. 내가 상통한 놈의 성명을 빨리 대라.”

하는 시아버지의 호령이 서릿발 같았다. 그러나 숙영은 오히려 낭랑하게,

“아무리 시부모님 간택으로 육례*를 이루지 못한 며느

리라 할지라도 어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억울한 누명을 발명(發明)하기도 창피하오나, 아버님께서 자세히 조사해 보십시오. ㉡이 몸이 지금 비록 인간으로 있사오나, 저의 빙옥(氷玉) 같은 정절(貞節)로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천수(潁川水)가 떨어져 귀를 씻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다만 죽어 모르고자 합니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통해: ‘통해하다’의 어근. ‘통해하다’는 ‘몹시 이상스러워 놀란다.’의 의미임.

*육례(六禮):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 납채, 문명(問名), 납길, 납폐, 청기(請期), 친영을 이룸.

(나)

벽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상대가 다만 놀란 듯 크게 열린 눈으로 바라볼 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간파해 버린 전갈은 꼬리를 쳐들어 둥글게 머리 위로 구부렸다. 적이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자세였으나 1초와 1/2초까지 계산되어 이어지는 기계 체조 선수의 굴신 동작처럼 유연한 몸짓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여자가 젖어 있던, 이별 뒤의 허탈함과 해방감, 불분명한 가슴 예임, 애상 따위를 비웃듯 벽과 책상 사이의 좁은 틈서리로 천천히 사라졌다. 방은 남편이 사용하던 물건, 기거하던 흔적들로 가득했다. 책상, 책장, 엽총, 배낭, 옷걸이에 걸린 채로인 옷가지들이 곳곳에서 그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전갈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여자가 혼자 힘으로 - 설사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그들의 힘을 빌린다 해도 - 들어 옮길 수 있는 짐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 기껏 그날 밤 그 여자가 한 일이란 바퀴벌레를 죽이기 위해 늘상 해 왔던 방법, 즉 봉산 가루를 뿌리고 마른 쪽을 태워 연기를 피우는 일뿐이었다. 그것만이 전갈로부터 아이들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그 작은 독충의 위협, 환상 앞에서 그 여자는 무력했다. 밤새 그 여자는 전갈이 소리 없이 기어 다니며 아이들의 연한 살을 찌르고 재빨리 달아나는 환상에 시달려 역시 한 마리 전갈처럼 어둠 속에서 서성였던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1년이 지나 남편이 귀국한다는 전갈이 오자 그녀는 음식을 장만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 남편의 귀국 전날 그녀는 잠자리에 들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시간을 회상한다.

아침나절의 외출과 오후의 긴 산책으로 피곤했지만 그 여자는 잠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차라리 남편의 물건들이 유품처럼 보존되어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방의 청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듯했다. 전갈을 발견한 후 그 여자는 남편의 방 청소를 버리기만 할 뿐 엄두를 내

지 못했다.

1년은 긴 시간이 아니오, 지난해와 또 그 지난해,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 보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임지로 떠날 때 남편은 말했었다. 그 여자가 아이에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그가 그곳의 새로운 생활과 일, 사귄 사람들과 풍속에 대해 간간 써 보내듯 그 여자도 아이들의 자라남에 대해, 그가 없는 가정의 쓸쓸함에 대해 편지를 써 보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승진을 보장받는다든 명분이긴 했지만 모두가 내켜 하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의 지사 근무를 그는 거의 자원한 것이라고 그 여자는 믿고 있었다.

그 무렵 똑같이 마흔 살 동갑내기인 **그들 부부는 일종의 권태로움에 빠져 있었다.**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말해 버리기에는 복잡한, 무언가 지쳐 가고 있다는 분명치 않은 무력감이었다. 마흔 살이란, 자기의 시절이 지나고 있다는 초조감과 함께 인생이 그에게 새로운 계기와 자극을 요구하는 나이였지만 또한 무엇을 새로이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추어 염사인 그는 아프리카의 신생국에 냉장고, 세탁기 따위를 팔러 가면서 말라리아와 독충의 위협보다 분명 더럽혀지지 않은 초지(草地)와 밀림, 야생의 동물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여자 역시 살아온 세월의 부피와 경륜이, 시간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젊은이를 늙게 하듯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교훈을 그 여자에게 가르쳤으나 그것은 구원도 위안도 되지 못했다.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될 1년간의 시간은** 아마 그 여자의 전 생애와 맞먹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독이 만성적인 권태와 무위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리라는 기대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남편이 떠난 뒤 어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쌓여 한 달 두 달이 흘러갔다. 그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의 봉급을 지급받기 위해 정해진 은행의 창구를 찾아갔고 또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 구경을 가거나 갈나무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뚜렷하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때때로 자정 넘어, 새벽 2시, 3시쯤에도, 술 취한 사람이 합부로 운전하는 자동차와 경비원의 플래시 불빛을 피하여 펠럭이며 아파트의 빈 광장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마음의 외로움이나 불안은 조금씩 스러졌다.

- 오정희, 「진갈」

30. (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백 공은 숙영에 대한 의심을 풀고 자신의 침소로 돌아온다.
- ② 백 공은 숙영의 방을 찾은 남자가 선군임을 알고 있었다.
- ③ 숙영은 선군의 신변에 탈이 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 ④ 숙영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현실을 분하게 여긴다.
- ⑤ 숙영은 자신의 결백을 죽음으로 입증할 것임을 내비친다.

31.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 시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는 선군의 곤혹스러운 내면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숙영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선군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 ③ ㉢: 자신이 맞닥뜨리게 된 상황을 두고 억울해하는 숙영의 한스러운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남편이 부재한 현실에서 느끼게 된 여자의 쓸쓸한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일상에서 겪게 된 심리적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자의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숙영'과 [B]의 '숙영'은 모두 이별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 ② [A]의 '숙영'과 [B]의 '숙영'은 모두 '선군'의 행위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
- ③ [A]의 '선군'은 [B]의 '숙영'과 달리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단호한 결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의 '숙영'은 [A]의 '선군'과는 달리 자신의 안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 ⑤ [A]에서는 '숙영'과의 이별에 연연하는 '선군'의 모습이, [B]에서는 '선군'의 마음을 돌리려는 '숙영'의 사려 깊은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33. (나)의 '여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편과의 이별 뒤 자신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함을 느끼었군.
- ② 세월의 경륜이 주는 일상적 교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군.
- ③ 자신이 삶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나이에 이르렀음을 자각하고 있었군.
- ④ 남편이 아프리카 오지 근무를 자원한 이유가 승진만이 아닌,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군.
- ⑤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될 시간 동안의 고독이 삶의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군.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 소설사에서는 부부간의 애정 성취와 사랑의 의미를 묻는 '부부 서사'가 시대를 초월하여 창작되어 왔다. 이들 서사의 주인공들은 결혼 단계에서부터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기존의 질서나 제도로부터 벗어나 인간 본래의 마음에 따른 선택을 한다. 물론 결혼 생활 동안에는 부부의 미숙한 행위가 드러나기도 하고, 위기가 닥쳐오기도 한다. 이러한 서사적 열개를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부부상이 창출된다.

- ① (가)에서 '선군'이 과거 길에 올랐다가 '몰래 숙영의 방'을 찾는 것에서,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하는 '선군'의 미숙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가)에서 '숙영'이 자신을 '시부모님 간택으로 육례를 이루지 못한 며느리'라고 말하는 것에서, '숙영'의 애정 성취가 기존의 결혼 예법으로부터 벗어나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나)에서 '그들 부부는 일종의 권태로움에 빠져 있었다'고 한 것에서, 부부에게 결혼 생활의 위기가 닥쳤음을 알 수 있군.
- ④ (나)에서는 '여자가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될'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에서, '여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가)에서 '동별당', (나)에서 '남편의 방'은 두 부부의 사랑이 반성적으로 성찰되는 공간임을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든 언어의 음운, 문법,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말의 음운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우선 중세 국어에서는 어두, 즉 단어의 첫머리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었다. 현대 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최대 하나의 자음만 발음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두 개의 자음도 발음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의 '쌀'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 '쌀'에서 어두의 'ㅍ'은 'ㅍ'과 'ㅅ'이 각각 발음되는 것을 적은 표기였다. 다음으로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 없는 'ㅍ, ㅎ, ㅅ' 등과 같은 자음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모두 중세 국어 시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했다. 또 중세 국어에서는 음절 말에서 현대에 쓰이는 7종류의 자음뿐 아니라 'ㅅ'도 발음될 수 있었다. 단모음은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7개만 존재했다. 이중 모음의 표기는 두 단모음의 표기를 결합한 것이었는데, 가령 'ㅏ'와 'ㅣ'가 결합된 'ㅑ'는 단모음이 아닌 [aj]라는 이중 모음을 표기한 것이었다. 나아가 중세 국어에는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결합인 삼중 모음이 존재했는데, 삼중 모음도 이중 모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되었다.

중세 국어는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점차 현대 국어의 모습에 가까워진다. 우선 근대 국어에서는 중성 자리에서 현대 국어와 같이 7종류의 자음만 발음되는 것으로 변화했다. 또한 중세 국어에 없던 현상인 구개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현대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에만 일어나는 현상인 데 반해, 근대 국어 시기에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예컨대 '디다'는 '지다'로 바뀌었다. 현대 국어 단어들의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근대 국어 시기까지 그 단어들의 'ㄷ, ㅌ' 뒤에 오는 모음이 'ㅣ'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개음화가 적용될 조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 '디디다'가 구개음화되지 않는 이유는 '디디-'가 근대 국어 시기에는 구개음화가 적용될 수 없는 형태인 '드디-'였기 때문이다. 또한 모음의 변화로는 ㉠양순음 아래에서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35. 윗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에서는 '낫'과 '남'의 발음이 달랐겠군.
- ② 어두의 [ㅍ]을 현대 국어에서 'ㅍ'으로 적는 것과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ㅍ'과 'ㅅ'을 합쳐 적었겠군.
- ③ 글자 모양으로 보아 '내, 게'는 중세 국어에는 삼중 모음이었겠군.
- ④ 중세 국어에서 '밭'은 주걱 조사와 붙을 때 [바치]가 아니라 [바티]로 발음되었겠군.
- ⑤ 현대 국어 '잔디'의 'ㅣ'는 근대 국어 시기에는 'ㅣ'가 아니었겠군.

36. ㉠의 예로서 적절한 것은?

	중세 국어	근대 국어
①	믈	물
②	븨	북
③	두셔	두어
④	아츨	아침
⑤	비르소	비로소

- ① ①번
- ② ②번
- ③ ③번
- ④ ④번
- ⑤ ⑤번

37. <보기>의 ㉠~㉣을 예로 하여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군민들이 대비를 많이 했으나 태풍은 오지 않았다.
 ㉡ 나는 요즈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 정희는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서 절약이 몸에 배었다.
 ㉣ 형이 문제를 풀기는 했으나 시간 내에 풀지는 못했다.
 ㉤ 그 식당이 문을 닫아서 점심을 먹지 못하고 돌아왔다.

- ① ㉠: 어떤 사실을 단순하게 부정함을 나타내는 데에 '안 부정문'이 쓰였다.
- ② ㉡: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데에 '안 부정문'이 쓰였다.
- ③ ㉢: 문장을 말하는 이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는 데에 '못 부정문'이 쓰였다.
- ④ ㉣: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의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데에 '못 부정문'이 쓰였다.
- ⑤ ㉤: 외부의 상황이 원인이 되어 생긴 결과를 나타내는 데에 '못 부정문'이 쓰였다.

38. <보기>의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질문: '상자가 얼마나 큰지 소년은 도저히 들 수 없었다.'에서 '지'는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지'의 띄어쓰기가 헛갈립니다. 구별 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변: '-(으)ㄴ지'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쓰지만, 의존 명사 '지'는 앞말과 띄어 씁니다. 문제는 의존 명사 '지' 앞에 어미 '-(으)ㄴ'이 붙은 활용형이 올 때 '-(으)ㄴ지'와 형태가 동일하게 되어 헛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의미를 통해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미 '-(으)ㄴ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이는 반면, 의존 명사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와 같은 문장에서의 '지'는 앞말과 띄어 쓰지만, 질문의 '큰지'는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 ①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 ② 벌써 집 떠난 지가 삼 년이 지났다.
- ③ 그가 제시간에 도착했는 지를 모르겠다.
- ④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한참 후에 돌아왔다.
- 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지도 이미 하루가 지났다.

39. <보기>의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를 높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인 주어 높여 직접적으로 실현되거나 주체의 신체 혹은 소유물 등을 높여 간접적으로 실현된다. 반면 객체 높임법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그 실현 방식에 차이가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습-', '-줍-', '-습-' 등을 통해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이러한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드리다', '여쭙다' 등의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객체 높임법을 실현한다.

(가) 太子(태자) | 東門(동문) 밧긔 나가시니
 (태자가 동문 밖에 나가시니)
 (나) 부텃 누니 비록 볼ᄃ시나
 (부처의 눈이 비록 밝으시나)
 (다) 너희 스승을 보습고져 호노니
 (너희 스승을 뵈고자 하나니)
 (라) 龍王(용왕)이 世尊(세존)을 보습고
 (용왕이 세존을 뵈고)
 (마) 阿羅漢(아라한)이 부텃긔 머리 좃습고
 (아라한이 부처께 머리를 조아리고)

- ① (가): '-시-'를 통해 주체인 '태자(太子)'를 높이고 있다.
- ② (나): '-으시-'를 통해 주체인 '부처'의 신체를 높이고 있다.
- ③ (다): '-습-'을 통해 객체인 '스승'을 높이고 있다.
- ④ (라): '-습-'을 통해 객체인 '용왕(龍王)'을 높이고 있다.
- ⑤ (마): '-습-'을 통해 객체인 '부처'를 높이고 있다.

[40~43] (가)는 인터넷 신문이고, (나)는 공익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위험군 비율은 작년보다 늘어
가파른 증가세의 유아동층 비율, 4명 중 1명이 '위험'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성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78.7%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고위험과 잠재적 위험 포함) 비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연령층 중 유아동의 위험군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클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20%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아동(만 3~9세)의 과의존 위험군이 전년 대비 2.2%p 증가하여 다른 연령층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조기에 형성하도록 유아동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연도	대상	고위험	잠재적 위험
2017	유아동(만 3~9세)	19.1	17.9
	청소년(만 10~19세)	30.3	26.7
	성인(만 20~59세)	17.4	14.6
2018	유아동(만 3~9세)	20.7	18.7
	청소년(만 10~19세)	29.3	25.7
	성인(만 20~59세)	18.1	15.4
2019	유아동(만 3~9세)	22.9	20.6
	청소년(만 10~19세)	30.2	26.4
	성인(만 20~59세)	18.8	16.0
2019	60대	12.9	10.8
	70대	14.2	11.8
	80대	14.9	12.4

64 (😊) 30 (😞)

[관련 뉴스]
 유아·어린이 스마트폰 과의존... 뇌 발달·성장 위협 - □□ 신문
 신조어... 스몸비 - ◇◇ 일보
 ○○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온라인 홍보 - ×× 신문

전체 댓글 12
 최근순 | 추천순 | 반대순

요즘 버스나 지하철에서 대부분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심각한 현상인 것 같아요. (36 👍 3 👎)
 ↳ 그럼 책을 보고 있다면 문제가 아닌가요?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15 👍 0 👎)
 기사 내용으로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22 👍 1 👎)

(나)

밥 한 번, 스마트폰 한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① 당신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스마트폰 사용량 전 세계 1위 대한민국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40. 종이 신문과 차별화되는 (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읽고 있는 기사와 관련된 다른 기사를 추가로 읽을 수 있다.
- ② 댓글을 통해 기사와 관련한 의견을 다른 사람과 쌍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 ③ 기사 내용을 인쇄할 수 있고 기사가 게시된 곳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 ④ 기사의 주요 정보를 시각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표제와 부제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
- ⑤ 다른 정보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된 부분을 클릭하면 기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41. <보기>는 (가)와 동일한 조사 결과를 다룬 인터넷 신문의 일부이다. <보기>와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스마트폰 이용자 78.7%,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한 수준

유아동과 성인을 위한 대책 시급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78.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유아동과 성인, 60대에서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청소년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① 기사 생산자에 따라 같은 현상을 다르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② 기사 생산자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사에 제시된 해결 방안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③ 기사 생산자에 따라 왜곡된 방식으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의 견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④ 매체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과 목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사 내용을 작성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⑤ 매체 유형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과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42.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시각 자료의 상징성에 대한 수용자의 배경지식에 기대어 수용자를 설득한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시각 자료가 나타내는 바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수용자가 판단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본문에서 언급한 문구를 제목으로 활용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강조한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수용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비유적 표현의 문구를 활용하여 정보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수용자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생산자의 설득 의도를 강조한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과 같은 성격의 발화로 볼 수 없는 것은?

— <보 기> —

발화는 화자의 의도가 문장의 유형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되느냐 간접적으로 반영되느냐에 따라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로 나뉜다. 직접 발화는 종결 표현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는 발화이고 간접 발화는 종결 표현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발화이다.

- ① (아주 쉬운 수학 문제를 풀고 난 후)
A: 이런 문제를 누가 못 풀겠어?
B: 맞아. 이건 누구나 풀 수 있겠어.
- 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A: 아이가 도대체 몇 살이에요?
B: 아, 우리 아이가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 ③ (수술 전 아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아들에게)
A: 영수야, 수술하면 나아질 테니 조금만 더 참자.
B: 네, 엄마. 조금만 더 참아 볼게요.
- ④ (타지 사람이 서울의 지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A: 여기에서 광화문까지 어떻게 가요?
B: 이 길을 따라 죽 5분쯤 가면 됩니다.
- ⑤ (방금 마당에 빨래를 널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할 때)
A: 애야, 비가 오는구나.
B: 아, 예. 어머니, 나가서 빨래 건고 올게요.

[44~45] 다음은 공익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장면	요소	내용
①	영상	성큼성큼 다가오는 호랑이
	효과	소리: 긴장감이 느껴지는 배경 음악
②	영상	클로즈업된 호랑이
③	효과	소리: 호랑이의 포효소리
	영상	주저앉은 엄마와 딸
④	영상	공포를 느껴 주저앉은모녀와 달려드는 호랑이
	효과	소리: 긴장감이 더욱고조된 배경 음악
⑤	영상	갑자기 나타나 호랑이에게 목줄을 채우는 남자
	효과	소리: 목줄 채우는 소리
⑥	영상	목줄이 채워진 호랑이에서 변한 작고 귀여운강아지
	효과	소리: 강아지가 귀엽게짖는 소리 편집: 장면 교차
⑦	영상	놀란 모녀에게 멧쩍은듯 말하는 남자
	효과	소리: 우리 개는 순한데…….

⑧	영상	목줄을 찬 강아지와자막
	효과	자막과 내레이션: 펫티켓 지켜야죠!

44. 위 공익 광고의 생산자가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조가 되는 장면을 배치하여 광고의 주제를 강조해야겠다.
- ② 광고 전반부에서 펼쳐지는 상황의 실체가 후반부에서 밝혀지도록 장면을 구성해야겠다.
- ③ 음향과 장면 교차 편집의 시각적 효과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광고의 전달 효과를 높여야겠다.
- ④ 반려동물 보호인이 갖춰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 알리는 것을 광고의 목적으로 설정해야겠다.
- ⑤ 광고에서 펼쳐지는 상황의 시간적 흐름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여 광고 수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야겠다.

45. <보기>는 위 공익 광고의 1차 편집본이다. 1차 편집본의 수정을 위해 제시된 의견 중 위 공익 광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

— <보 기> —

장면	요소	내용
①	영상	성큼성큼 다가오는 호랑이
	효과	소리: 긴장감이 느껴지는 배경 음악
②	영상	클로즈업된 호랑이
	효과	소리: 호랑이의 포효 소리
③	영상	공포를 느껴 주저앉은 모녀와 달려드는 호랑이
	효과	장면 ①과 동일한 배경 음악
④	영상	갑자기 나타나 호랑이에게 목줄을 채우는 남자
	효과	소리: 목줄 채우는 소리
⑤	영상	목줄이 채워진 호랑이에서 변한 작고 귀여운 강아지
	효과	편집: 장면 교차
⑥	영상	놀란 모녀에게 멧쩍어하는 남자
	효과	내레이션: 주인의 눈에만 귀엽게 보일 수 있습니다.

- ①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상황이 드러나도록 배경 음악에 변화를 주면 좋겠어요.
- ② 겁에 질린 모녀의 시선에 비친 장면을 추가하여 모녀가 느끼는 공포감을 강조하면 좋겠어요.
- ③ 상황의 반전이 강조되도록 강아지가 귀엽게 짖는 소리를 추가하면 좋겠어요.
- ④ 반려동물에 대한 입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는 남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대사가 소리로 표현되면 좋겠어요.
- ⑤ 광고의 주제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내레이션을 수정하고 이를 자막으로 화면에 제시하면 좋겠어요.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